

보도 시점	<전매체> 4.29.(수) 08:00	배포	2026.4.29.(수)
-------	----------------------	----	---------------

담당 부서	스타트업팁스실	책임자	실장	윤선주	(02-2280-0460)
		담당자	책임	임유정	(02-2280-0462)
		담당자	선임	한승혁	(02-2280-0457)
배포 부서	소통홍보팀	책임자	팀장	김민철	(044-300-0720)
		담당자	주임	김셋별	(044-300-0721)

기정원장, 6,500억 해외 수출계약 이끈

전기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주지앤티] 방문

- 세계적 대기업의 혹독한 기술 검증, 틱스 기술개발 고도화로 돌파 -
- 김영신 기정원장, 미래 이동 수단 핵심 전력제어 부품 개발 기업 현장 방문해 성과 격려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 김영신 원장은 4월 28일(화), 미래 이동 수단 분야의 혁신 기술로 독일 대기업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주)지앤티(대표 손일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틱스 우수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천안에 위치한 (주)지앤티는 미래 이동수단 핵심 부품 및 솔루션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으로, 최근 독일의 세계적 자동차 부품 기업인 프레틀 그룹과 약 6,500억 원(약 3.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이동 수단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인정받았다.
 - 이러한 성과의 뒤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정원이 운영하는 '틱스' 사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지앤티는 지난해 심층 기술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15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으며 기술 고도화와 양산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 지앤티 손일수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적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가장 큰 장벽은 기술의 신뢰성과 자금의 안정성”이라며, “팁스 선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기술 강소기업’이라는 대외적 신뢰도를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 “특히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독일 프레틀 기업의 까다로운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이 6,500억 원 독점 공급계약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김영신 기정원장은 “지앤티의 이번 계약은 국내 창업기업의 기술력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팁스 사업이 지앤티와 같은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민간 주도·정부 지원형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기정원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 중에서도 지앤티가 참여 중인 심층 기술 관련 팁스 사업은 12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최대 15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가파른 성장을 돕고 있다.
 - 기정원은 앞으로도 참여기업들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속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